

靑 행정관 출신 對 현역 국회의원 '3파전'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5>목포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후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막판까지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가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민주당 김원이 후보는 '모든 준비는 마쳤다, 새로운 목포가 온다'는 슬로건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지방행정기관·중앙정부 경험을 쌓았다. 50대 초반이라는 젊음과 문재인대통령·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김 후보는 '근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아시아 관문도시'를 주제로 목포 발전의 청사진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은 ▲100년 역사 목포역 부지에 시민광장 조성 ▲목포 근대역사문화 특구 지정 ▲목포·산안을 세계 섬의 수도로 육성 ▲목포형 일자리 5000개, 전남형 일자리 2만개 창출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목포 선창경제 활성화 ▲원도심, 중도심, 신도심이 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목포 건설 ▲명품 교육, 보육도시 육성 ▲원하면 이루어지는 따뜻한 목포 복지 ▲선명한 개혁 '3대 입법' ▲목포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론화위원장 '유달정담' 운영 등이다.

김 후보는 장년·노년층 타깃 공약으로 '목포 50+ (플러스)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50플러스 세대는 50, 60대를 뜻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허리 세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삶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며 "50플러스 센터"를 설립해 중·장년층이 인생 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5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더 큰 목포, 전남 대통령을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박 후보는 "개항 123년 만에 목포의 눈물을 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오고 있다. 주저앉을 것인가, 희망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결국 사람 인물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박지원이 다리가 되겠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차별과 싸우느라 국비로 버텨 온 목포에 더 많은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더 큰 목포를 만들겠다"고 역설

정당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이름	김원이(51)	황규원(37)	박지원(77)	윤소하(58)
학력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대구가톨릭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단국대 사학과 졸업	목포대 경영학과 졸업
경력	(전)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김대중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전)자유한국당 달성군 회원 청년회장	(현)20대 국회의원 (전)문화관광부 장관	(현) 20대 국회의원
주요 공약	·목포형 일자리 5000개 창출 ·원도심·신도심이 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건설	·살기좋은 도시 목포 ·인재양성 중심지 목포 ·사통팔달 목포 만들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미래 전략산업(관광, 수산식품, 에너지 산업) 육성	·목포대 의과대학·병원 유치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민주당 김원이, 당 지지율 앞세워 표심공략

민생당 박지원, 인물론 내세워 5선 도전

정의당 윤소하, 시민운동 해 온 일꾼 강조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 뒤늦게 출사표

했다. 정치 9단이라는 별칭답게, "21대 국회에서는 DJ정신을 계승하는 지역 후배들을 지원하고, 전남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의 굵직한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민에게 적극 홍보하며, 선거를 당 대당 구도가 아닌, 인물대결로 끌고 가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2012년 목포대교 개통(국비 3346억원), 2019년 천사대교 개통(국비 5800억원) 등 지난 2008년 당선 이후 6조원 규모의 SOC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목포의 하늘·땅·바닷길을 새로 개척했다"며 "앞으로도 목포 발전을 이끌 힘있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미래전략산업(관광, 수산식품, 에너지 산업) 육성 내용이 담긴 '337 프로젝트'다. 또한, 목포를 문화·교육·안전의 3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정의당 윤소하 후보는 30여년을 목포를 기반으로 시민운동을 해 온 시민들의 일꾼임을 강조한다. 총선 이후로

급부상한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전남권 의대 유치 공약을 놓고 민주당과 민생당간 공방을 벌일 때, 정의당 전남도당이 내놓은 "목포대 의대 유치는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최근 4년간 윤소하 의원이 노력했고,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연구용역'까지 이뤄져 설립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성명이 현상황과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윤 후보는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중심도시 목포' 건설 ▲'미래 해양도시 목포' 건설을 위한 전국적인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확대 ▲'체류형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거점도시 목포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30여년간 목포에서 시민운동을 해오다 4년 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며 "지난 4년간 133개 법안을 만들고, 그 중 4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을 만들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열심히 뛰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는 "살기 좋은 도시 목포, 인재양성 중심지 목포, 사통팔달 목포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며 "금명간 보다 소상한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공항 면세점 선정 불공정 논란

입찰서 매출액에 높은 점수 배정 대형업체 1순위, 향토업체 탈락

최근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대규모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관세청 본심사 전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한 경쟁입찰이 업체 매출액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온 지역업체가 탈락하고 수도권 업체가 본심사에 오르자 배점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역 업체 국민산업과 인천지역 업체 시티플러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매출액에서 앞선 시티플러스가 1순위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9일 예정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 시티플러스를 단수 추천했다.

문제는 이날 평가항목 가운데 운영 경험 분야의 매출액 평가가 공평한 규모나 운항편수, 이용객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단순 평가했다는 점이다. 국내 영업 면세

점(중소·중견)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200% 이상일 때 8점, 기준금액 60% 미만일 때 0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매출액 평가 기간(2016년 1월~2018년 12월) 순항 편수와 이용객 현황을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인천공항이 107만1437편수에 이용객은 1억 8634만8925명인데 비해 무안공항은 5195편수에 67만849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탈락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당사는 최근 5년간 무안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국공항공사가 납득하기 힘든 잣대로 신규 면세점 업체를 선정했으며, 공정한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관계자는 "입찰 평가 기준은 전국 공항 면세점 공통사항으로 대형업체나 특정 기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JTC)의 자회사 K-BOX의 70% 지분기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산학연협의회' 출범

광주형 비즈니스 모델 구현

광주시가 인공지능 산업 산학연협의회를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산학연협의회' 발대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광주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주도로 조직한 협의체다.

최근 광주로 이전한 인코어드P&P,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와 관내 인공지능 분야 기업체,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체·지역대학·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 연구교류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 추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발맞춰 민간 부분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임종석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기술지원센터장의 광주 인공지능 산업 현황보고, 인공지능 기업 지원정책 제언과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석 센터장은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예코시스템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기업과 도시가 더불어 성장하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연구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기업이 광주 이점을 확정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 모든 산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과제 발굴, 기술개발 및 이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판세 분석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래도 목포는 박지원 아닌가."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 정치 1번지 목포 국회의원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몇몇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원이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서 결과야 여럿 나왔지만 각 당 당직자는 물론 언론 종사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상대가 박지원 아니냐, 끝까지 결과는 모르겠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정의당 윤소하 후보 측에서는 "윤 후보자가 목포에서만 시민운동 30년에, 총선 주요 이슈인 목포대 의대 유치 문제를 선점하지 않았느냐"며 "막판까지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의지를 불태운다.

김원이 여론조사 앞서지만 "그래도 상대는 박지원"...끝까지 몰라

김원이 후보는 선거 초기 '김원이가 대체 누구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목포에는 생소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부시장,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하고, 당내 경선에서 우기종 전남도 부지사를 꺾은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세도 김 후보에게는 손풍에 돛단 격이다. 목포고도, 문태고도 아닌 목포 마리아회고 출신의 총선 후보라는 점에서 마리아회고 동문들이 푹푹 뭉쳤다는 얘기가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조직력과 인물론을 앞세워 판을 흔들고 있다. 자타공인 정치 9단의 노련한 정치인으로 총선 이

후 '호남대통령론, 전남대통령론'을 제시해 목포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후보 측이 '그래도 목포는 박지원 아니냐, 박지원이 21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후진양성에 힘쓰겠다'는 선거전략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윤소하 후보는 30년간 목포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쌓은 바닥 민심을 바탕으로 한 10~20%의 고정표를 무시 못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고정표를 얼마나 확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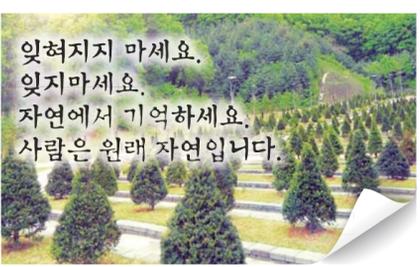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